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21호 [루게 제23073호] 주제99 (2010)년 5월 1일 (토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사설

강성대국건설에서 선군조선근로자들의 혁명적기상을 높이 떨치자

전당, 전군, 전민이 뜻깊은 올해를 김일성조선의 력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기 위한 대고조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령 5.1절 12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이날에 즈음하여 우리 당은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선군조선근로자들의 혁명적본매와 기상을 높이 떨치며 대고조의 불길에 새차게 지켜올리고있는 로동계급과 농민, 지식인들을 비롯하여 전세 근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반제자주의 기치높이 사회진보와 평화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는 전세계근로자들과 혁명적인민들에게 뜨거운 전투적인사와 굳은 연대성을 보낸다.

5.1절은 온갖 지배와 억측을 청산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전세계근로자들의 전투적위력과 혁명적단결을 시위하는 국제적명령이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이 5.1절을 기념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 이 나날은 근로인민대중이 제국주의의 지배와 탄압,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고 인간의 존엄높은 삶을 위하여 피어린 투쟁을 벌려온 력사이며 자주와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승리와 전진을 이룩하여온 과정이다.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여온 가장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영웅적부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반제자주의의 앞방에서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은 자주성을 위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를 혁명의 전투에 높이 모으으로써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행로에서 거대한 전진과 자랑찬 승리를 이룩하여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우리 인민에게 자주위업수행의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주시였으며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시고 그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시였다.

이 투쟁과정에는 제국주의강적들과의 치열한 혁명전쟁도 있었고 빈터에서 모든것을 새로 건설해야 하는 시련의 시기도 있었으며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간섭책동도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우리 시대 사회주의위업의 위대한 수호자, 위대한 령도자이다. 그 어떤 천지공파가 당쳐와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높이 들고오신 주체의 불은기를 억세게 틀어쥐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려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칙의 의지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져온 우리 인민의 반제투쟁력사, 사회주의건설력사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선군시대에 꽃피어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우리 시대 사회주의위업의 위대한 수호자, 위대한 령도자이다. 그 어떤 천지공파가 당쳐와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높이 들고오신 주체의 불은기를 억세게 틀어쥐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려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칙의 의지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에는 일련단식 당을 따라 벌한것이 한길은 걸어온 강선의 로동계급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데서 선구자가 될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혁명의 열의와 감동에는 우리 근로자들을 견결한 반제자주의 투사, 불가능을 모르는 창조자로 키우신 령도의 자욱자욱이 력력히 새겨져 있다.

세상에는 우리 근로자들처럼 령도자를 따르는 길에서 참된 삶의 긍지와 보람을 찾고 당의 요구라면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며 폭풍적 전진해나가는 결사용위, 결사판철의 투사들은 없다.

우리 근로자들은 원대한 포부와 비상한 창조정신으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열렬한 애국투사들이다.

근로대중의 애국적열의와 헌신성의 높이이자 사회주의건설의 전진 속도이다.

부강조국건설의 년대마다 핵심부대, 기본전투부대로서의 역할을 다 하여온 우리 근로자들의 애국적열의는 오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대고조전군건설에서 더욱이 발휘되고 있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다.

우리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결사용위해나가는 순결한 충정의 대오이다.

수령결사용위는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생명선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는 우리 조국의

국적열정의 폭발이다.

오늘 제국주의반동들은 우리 인민의 강성대국건설전군을 가로막아 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그러나 적들의 제제봉쇄책동이 악랄해질수록 우리 근로자들의 민족자존의 정신력은 천백배로 분출되고있다.

우리가 우주정복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CNC기술의 패권을 틀어쥐었으며 주체철과 비날론, 비로를 팡팡 생산해내고있는 현실은 우리 인민의 모든 리상이 실현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우리 근로자들은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사회주의적원칙, 계급적원칙을 견결히 고수해나가는 혁명적인민이다.

사회주의의 우리 근로자들의 생명으로, 생활로 되고있다.

사회주의제도에사만 가장 값높고 보람차고 행복한 참다운 인간생활을 누릴수 있다는것이 우리 인민이 력사와 현실을 통하여 절감한 진리이다.

우리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의 보검인 선군총대를 강화하는것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고있으며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며 투쟁해나가고있다.

신천양의 피의 교훈을 배와 살로 새긴 우리 인민에게는 정세가 어떻게 변하건 제국주의반동들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거나 사회주의원칙에서 탈선하는 일이 있을수 없다.

우리 근로자들은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고있으며 우리의 우월한 사회주의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꽃피워나가고있다.

우리는 지난 시기의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리념과 우리 식의 혁명방식, 창조방식으로 이 땅우에 우리의 사회주의를 건설해나갈것을 단결하고 단결하고 단결하여 한다.

당의 선군혁명노선의 요구대로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지고 전군을 단결불락의 요새로 만드는데 최우선적인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은 사회에 군중시위시위를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시고 우리 근로자들을 시대물앞에서 선도해나가는 강위력한 혁명대오로 키우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사에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앞에는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에 더욱 새차게 지켜올려야 할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정신력은 천백배로 분출되고있다.

우리가 우주정복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CNC기술의 패권을 틀어쥐었으며 주체철과 비날론, 비로를 팡팡 생산해내고있는 현실은 우리 인민의 모든 리상이 실현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우리 근로자들은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사회주의적원칙, 계급적원칙을 견결히 고수해나가는 혁명적인민이다.

사회주의의 우리 근로자들의 생명으로, 생활로 되고있다.

사회주의제도에사만 가장 값높고 보람차고 행복한 참다운 인간생활을 누릴수 있다는것이 우리 인민이 력사와 현실을 통하여 절감한 진리이다.

우리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의 보검인 선군총대를 강화하는것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고있으며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며 투쟁해나가고있다.

신천양의 피의 교훈을 배와 살로 새긴 우리 인민에게는 정세가 어떻게 변하건 제국주의반동들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거나 사회주의원칙에서 탈선하는 일이 있을수 없다.

우리 근로자들은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고있으며 우리의 우월한 사회주의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꽃피워나가고있다.

우리는 지난 시기의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리념과 우리 식의 혁명방식, 창조방식으로 이 땅우에 우리의 사회주의를 건설해나갈것을 단결하고 단결하고 단결하여 한다.

당의 선군혁명노선의 요구대로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지고 전군을 단결불락의 요새로 만드는데 최우선적인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은 사회에 군중시위시위를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시고 우리 근로자들을 시대물앞에서 선도해나가는 강위력한 혁명대오로 키우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사에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앞에는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에 더욱 새차게 지켜올려야 할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정신력은 천백배로 분출되고있다.

우리가 우주정복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CNC기술의 패권을 틀어쥐었으며 주체철과 비날론, 비로를 팡팡 생산해내고있는 현실은 우리 인민의 모든 리상이 실현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우리 근로자들은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사회주의적원칙, 계급적원칙을 견결히 고수해나가는 혁명적인민이다.

사회주의의 우리 근로자들의 생명으로, 생활로 되고있다.

사회주의제도에사만 가장 값높고 보람차고 행복한 참다운 인간생활을 누릴수 있다는것이 우리 인민이 력사와 현실을 통하여 절감한 진리이다.

우리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의 보검인 선군총대를 강화하는것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고있으며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며 투쟁해나가고있다.

신천양의 피의 교훈을 배와 살로 새긴 우리 인민에게는 정세가 어떻게 변하건 제국주의반동들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거나 사회주의원칙에서 탈선하는 일이 있을수 없다.

우리 근로자들은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고있으며 우리의 우월한 사회주의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꽃피워나가고있다.

우리는 지난 시기의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리념과 우리 식의 혁명방식, 창조방식으로 이 땅우에 우리의 사회주의를 건설해나갈것을 단결하고 단결하고 단결하여 한다.

당의 선군혁명노선의 요구대로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지고 전군을 단결불락의 요새로 만드는데 최우선적인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은 사회에 군중시위시위를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시고 우리 근로자들을 시대물앞에서 선도해나가는 강위력한 혁명대오로 키우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사에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2면으로 계속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종업원들에게 선물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전체 종업원들에게 선물을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 동지와 강양도 남포시당위원회 책임비서,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에는 일련단식 당을 따라 벌한것이 한길은 걸어온 강선의 로동계급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데서 선구자가 될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위하여 철강재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호금도동지를 만났다

【상해 4월 30일 본사특파원발 조선중앙통신】 2010년 상해세계박람회 개막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중국을 방문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4월 30일 상해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호금도동지를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호금도동지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자신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여드림것을 김영남동지에게 부탁하였다.

중조선선판계를 고도로 중시하며 선린우호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려는것은 중국당과 정부가 일관한 방침이라고 하면서 그는 쌍방사이의 친선애함과 협조를 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7호 주제99 (2010)년 4월 29일

경희극 《산울림》에
《김일성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국립연극단 창작가, 예술인들이 새롭게 창조한 선군시대 문학예술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작품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교양에서 훌륭한 교본으로 되는 경희극 《산울림》에 《김일성상》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경희극 《산울림》 창조사업에서
공로있는 창작가, 예술인들을 표창

【평양 4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경희극 《산울림》 창조사업에서 공로있는 창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국립연극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연극리론을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선군시대의 미감에 맞는 사상예술성이 완벽하고 모든 형상요소들이 최상의 경지에 이른 경희극 《산울림》을 새롭게 창조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을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불려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표창식이 4월 30일에 진행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최양형동지와 안동춘문화상, 판계부문 일군들, 경희극창조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표창식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들이 전달되었다.

경희극 《산울림》에 《김일성상》이 수여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 칭호와 함께 금메달 (마치와 낮) 및 국기훈장 제1급이 국립연극단 연출가 차진삼에게 수여되었다.

또한 국립연극단 부단장 김홍기, 화술장사 리동백에게 국기훈장 제1급이, 국립연극단 파장 유태환, 부원 라성국, 의사사 박희숙, 조명사들인 조수현, 리장춘, 배우 리현환, 대명환동사 김판덕, 모란봉구역 서흥동 윤환희에게 로력훈장이 수여된것을 비롯하여 많은 창조성원들이 훈장과 메달을 받았다.

표창식에서 토론자들은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예술창조활동을 적극 벌려 혁명적인 연극들을 더 많이 창작공헌함으로써 주체예술의 보람과 영광을 함께 금메달 (마치와 낮) 및 국기훈장 제1급이 국립연극단 연출가 차진삼에게 수여되었다.

강성대국의 봄을 알리는 사회주의리상향의 진달래꽃바다

선군시대의 대과원으로 회한하게 일떠선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이 환희로운 진달래꽃절경을 자랑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지난해 11월 농장을 찾으시어 별천지에 온것 같다고 대단히 만족해하시며 드넓은 과수의 바다를 부감하신 농장원휴식처에 있는 등성이와 야산들에 새로 심은 진달래꽃들이 봄기운에 젖어 연분홍빛을 활짝 펼치였다.

휴양각같은 살림집들이 즐비하게 일떠선 산기슭의 과일동네들을 붉게붉게 갈싸얀 진달래꽃들은 봄물결을 함께 머금은 과일나무들이 일망무제하게 늘어선 과수원의 도로들과 공공건물주변 등 곳곳에서 그윽한 향기를 풍기며 선군11경의 하나로 솟아난 사회주의리상향의 풍경을 한껏 돋우고있다.

선군조국의 봄을 알리는 진달래의 화려이 세계적인 대정춘파원에 펼쳐진 선경은

우리 인민에게 오곡백과 주렁지는 사회주의 무릉도원을 안겨주시기 위해 마음쓰신 백두산3대장군의 숭고한 뜻이 이 땅우에 위대한 현실로 꽃피어 강성대국의 봄이 화창했음을 가슴벅차게 새겨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볼수록 환황한 지상천국이며 사회주의리상향, 리상향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원홍명의 전변을 안고 만발한 진달래꽃바다는 단순한 자연의 꽃이 아니라 백두산위인들의 열렬한 념원을 안고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상징으로 이 나라 강산에 피어나는 사연깊은 진달래의 심원한 의미를 다시금 뜨겁게 새겨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진달래꽃을 보실 때마다 항일전의 나날을 추억하시며 조국의 진달래라는 말속에 조국해방의 봄을 앞당기고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려는 혁명선열들의 념원이 어렸다고 가르치시였다.

《조국의 봄을 알리는 진달래》라고 깊은 뜻을 담아 부르시고 노래 《조국의 진달래》도 즐겨 들으시며 내 나라를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빛내시실 원대고 구상을 무르익히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항일성전의 불길은 거세차게 지퍼올리기 위한 국내전공의 나날 5호를

동가와 삼지연못가를 비롯한 조국땅에 만발한 진달래꽃들을 한몸에 안고 애국의 피를 뚝이시며 통성변명할 조국의 미래를 그리시던 백두의 념강산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리상도 이 강산에 피고피는 진달래들에 그대로 어려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김정일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시기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진달래》에는 봄소식을 먼저 알려며 변함없이 피어나는 조선의 진달래와 더불어 위대한 수령님과 백두산녀장군의 념원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우실 장군님의 높은 뜻이 숨엄히 빛나고있다.

우리 인민에게 천만가지 복락이 넘쳐나는 강성대국을 하루빨리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같은 열망과 애국헌신에 의해 선군8경이 선군11경으로 늘어나며 끝없이 흥하는 내 조국의 벽천 현실을 천지개벽한 원홍풍이 펼쳐진 진달래꽃바다가 뜨겁게 전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눈부신 과수의 선경을 이룬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포전길을 밟으시며 평성소원이 풀렸다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진달래와 같은 꽃관목들을 많이 심고 농장을 인민의 지상락원으로, 꽃동산으로 더 잘 꾸미는데 대한 휘황찬란한 전망을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조선인민내무군의 장병들은 농장의 경계를 일만공리로 빛내기 위한 식수사업을 세계 1등급의 대과원을 일떠세우

는 기본건설전투와 함께 힘있게 밀고나갔다.

평양시, 평안남도, 황해북도인민보안국을 비롯한 전국각지의 인민보안기관 일군들과 내무군인원들의 고결한 총정과 애국적인헌신에 의하여 조국의 봄, 강성대국의 봄을 알리는 진달래가 원홍지구의 100여정도에 달하는 야산기슭에 30여만그루나 뿌리내려 만개를 이루었다.

백파락을 연분홍색으로 물든 진달래화원은 수없이 피어난 개나리꽃들과 어울려 명산의 꽃풍경 못지 않은 유경불국산 황룡정을 펼치고있다.

진달래와 함께 새로 심은 철쭉과 장미, 죽도화, 분홍꽃아카시야나루, 단풍나무, 정향나무, 황목련 등 40여종에 20여만그루의 꽃관목과 나무들은 지상천국의 더욱 아름다움에 레일을 그려주고있다.

혁명선열들의 넋이 뜨겁게 스민 대성산과 잇닿아있는 대과원에 펼쳐진 진달래풍경을 보며 내무군인들과 이곳 농장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손길아래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사회주의리상향이 일떠서고 김정일조선은 으름으로 흥황 강성변명의 꿈을 이루고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고있다.

대동강과수종합농장뿐아니라 선군조국의 산과 들마다에 만발하는 진달래꽃들은 위대한 당의 은덕으로 오곡백과파산리에 부귀영화를 끌어들여 누릴 우리 인민의 리상을 안고 강성대국의 봄향기를 질게 풍기고있다.

【조선중앙통신】



풍년로적가리 높이 싹을 활마음안고

분덕군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어졌으며 새맛찾기와 해안방조제공사, 유기농업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 등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그러나 일군들은 이에 만족할수 없었다.

쌀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들어나갈 불라는 마음을 안고 일군들은 더 높은 투쟁목표를 제기하였다. 거름원천이 부족한 군의 실정에서 계획보다 많은 거름을 더 생산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일군들은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반드시 해낼수 있다는 배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방도를 찾아나갔다. 단계별목표가 정해지고 구체적인 조치사업이 이루어졌다.

《남들이 한걸음을 걸으면 우리는 열걸음, 백걸음을 뛰어서라도 높이 세운 거름생산목표를 가이여 달성합시다. 우리 일군들이 어떻게 뛰는가에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힘있게 성취여부가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합시다.》

군당책임일군의 말은 일군들의 심장을 틀어잡았다.

군인민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군인민보안서 등 군급기관 일군들은 공장, 기업소들과 동, 인민반, 협동농장들에 나가 더 많은 거름을 생산하여 포전에 내도록 하기 위한 선진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협동농장들은 물론 모든 공장, 기업소, 가정들에서까지 질 좋은 거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전투로 착들어나갔다. 밭에서 이르기까지 모든 땅을 더 잘 돌보아야 한다는 구호를 높이 외쳤다. 작업반과 분조들이 번갈아 거름을 같이 싣어내면서 이신작적으로 대증을 이끌어 나가는 군일군들, 질 좋은 도시거름을 가득 싣고 경쟁적으로 농장별로 달려나가는 자동차들과 트랙터들, 열두바다

은 물론 구석구석들에 남아있는 거름원천들을 모조리 찾아 포전에 내는 농업근로자들... 이른아침이면 읍지구의 도로들에 손달구지와 짐승에 거름을 담아가지고 포전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그칠새 없었고 거름생산실적은 나날이 높아져 포전들에는 질 좋은 거름이 무겁게 실리였다.

어찌 이뿐이랴.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수공업발전소의 로동자들이 전력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발전소의 그 어디에 가보아도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어머니수령님의 유훈을 받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력공업부분의 로동계급은 나라의 동력기지를 지켜서서 무거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며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여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감으로써 온 나라에 대고조의 동음이 더욱 힘차게 울려 퍼지고 락원의 불아성이 펼쳐지게 하여야 합니다.》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수공업발전소의 로동자들이 전력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발전소의 그 어디에 가보아도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어머니수령님의 유훈을 받

이 평가해주시고 발전소가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투적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발전소의 지도도에 발전소의 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저한 관심을 위한 투쟁으로 대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적 조치를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발전소참모부에서는 1. 4분기에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불철조성에 맞게 수력구조물관리와 힘을 넣고 발전설비마다에 만부하를 보장하여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있고있다. 특히 발전설비의 효율을 더욱 높이는데 힘을

전력생산성과 확대

수공업발전소에서

이 평가해주시고 발전소가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투적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발전소의 지도도에 발전소의 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저한 관심을 위한 투쟁으로 대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적 조치를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발전소참모부에서는 1. 4분기에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불철조성에 맞게 수력구조물관리와 힘을 넣고 발전설비마다에 만부하를 보장하여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있고있다. 특히 발전설비의 효율을 더욱 높이는데 힘을

로 수행하고있다. 직장의 일군들은 작업조직을 치밀하게 짜고들면서 대증의 정신풀을 최대한으로 확보시켜 보수기일을 훨씬 앞당기도록 하고있다.

이밖에도 운영장소를 비롯한 발전소의 모든 직장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설비들에 대한 보수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긴급점검과 순회점검을 강화하면서 합리적인 부하배분을 실현해나가고 있다. 뿐만아니라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수력구조물들에 대한 관리사업을 짜고들고 물잡이에 힘을 넣음으로써 생산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있다.

발전소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열정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력생산성과는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강명천

모범적인 협동농장 (농목장) 들에 사회주의경쟁공동순회우승기 수여

【평양 4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당의 농업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지난해 사회주의경쟁에서 모범을 보인 다음의 협동농장 (농목장) 들에 공동순회우승기를 수여하기로 하였다.

만경대구역 만경대, 칠골, 금천, 원로남새전문농장, 대평농장, 사동구역 송신, 리현, 대현, 미림, 오류, 통성구역 화성, 형제산구역 학산, 형산, 재산, 천남, 신미, 력포구역 소년, 락방구역 벽지도, 보성, 풍동, 송남, 남사, 락방, 금대남새전문협동농장, 삼석구역 장수면, 순안구역 태암, 산양, 안흥, 강동군 삼동협동농장, 평양시 구빈, 송성, 태장, 문화속산전문협동농장, 평성시 삼파, 평원군 원화, 안주시 운송, 덕성, 연흥, 미상, 신양군 장산, 순천시 동암, 평리협동농장, 속원군 약전농장, 신의

성, 황주군 통천, 철도, 석정, 구포, 포남, 연탄군 북성, 문화, 은파군 적성, 서흥군 범안, 연산군 반천, 신평군 읍, 금천군 월암, 개성시 해신, 승호군 립식, 안변군 천삼, 비산, 천태군 통만협동농장, 고산과수농장, 함흥시 동흥산구역 구룡, 풍호, 회성구역 수동, 대동, 함주군 동봉, 신승군 창서, 정평군 읍, 불성, 호남, 내동, 흥원군 읍, 산양, 봉화, 삼성, 풍호, 남산, 신포시 봉중, 풍어, 보주, 북청군 읍, 장항, 라하, 동도, 철흥, 덕성군 수서, 단천시 양평, 평원, 평산, 허천군 중평, 와포협동농장, 봉진, 덕성, 허천과수농장, 팽포리과수농장, 김주군 봉암, 화대군 봉원, 리평시 오산덕, 망양, 인계, 온성군 읍, 무산군 문암, 경원군 후석, 금동협동농장, 경원군 통문속산전문협동농장, 와우도구역 신명, 명남, 강서구역 청산, 천리마구역 강선협동농장, 온천과수농장, 신천시 유현, 적지농장, 선봉은실농장을 비롯한 313개 단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사업은 어디까지나 격심과 불이 없이 대상의 특성과 구체적인 환경에 맞게 창조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어느 단위 당사업이나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진행될 때

논 배리는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오시려는 우리 인민의 총정 한결같지만 이곳 종업원들의 마음은 더욱더 뜨겁다.

이를 말해주는 특이한 일과 이런 날이다. 눈오는 날 일과이다. 눈오는 날 아침출근시간이 앞당겨지는것은 예상사이다. 이런 날이면 자그마한 오솔길에라도 눈이 쌓일때마다 종업원들모두가 손에서 비자처럼 눈가래를 내놓을 모른다.

명절날, 깊은 밤, 이른새벽... 가깝지 않다.

지난 3월, 갑자기 대기도가 내려가고 눈이 내렸을 때였다.

뒤집고 울랐던 초급당사직회 회장들이 되돌아오는 종업원들을 만나게 되었다. 며칠전에 삼복을 한 나무뿌리들이 얼것 같더니 달려가는 종업원들을 바라보는 일군의 마음은 뜨거웠다.

종업원들의 마음속에 태양의 성지에서 일하는 금

태양의 성지에 새겨지는 숭고한 도덕의리

2 중3대혁명붉은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사업은 어디까지나 격심과 불이 없이 대상의 특성과 구체적인 환경에 맞게 창조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어느 단위 당사업이나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진행될 때

논 배리는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오시려는 우리 인민의 총정 한결같지만 이곳 종업원들의 마음은 더욱더 뜨겁다.

이를 말해주는 특이한 일과 이런 날이다. 눈오는 날 일과이다. 눈오는 날 아침출근시간이 앞당겨지는것은 예상사이다. 이런 날이면 자그마한 오솔길에라도 눈이 쌓일때마다 종업원들모두가 손에서 비자처럼 눈가래를 내놓을 모른다.

명절날, 깊은 밤, 이른새벽... 가깝지 않다.

지난 3월, 갑자기 대기도가 내려가고 눈이 내렸을 때였다.

뒤집고 울랐던 초급당사직회 회장들이 되돌아오는 종업원들을 만나게 되었다. 며칠전에 삼복을 한 나무뿌리들이 얼것 같더니 달려가는 종업원들을 바라보는 일군의 마음은 뜨거웠다.

종업원들의 마음속에 태양의 성지에서 일하는 금

태양의 성지에 새겨지는 숭고한 도덕의리

2 중3대혁명붉은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사업은 어디까지나 격심과 불이 없이 대상의 특성과 구체적인 환경에 맞게 창조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어느 단위 당사업이나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진행될 때

논 배리는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오시려는 우리 인민의 총정 한결같지만 이곳 종업원들의 마음은 더욱더 뜨겁다.

이를 말해주는 특이한 일과 이런 날이다. 눈오는 날 일과이다. 눈오는 날 아침출근시간이 앞당겨지는것은 예상사이다. 이런 날이면 자그마한 오솔길에라도 눈이 쌓일때마다 종업원들모두가 손에서 비자처럼 눈가래를 내놓을 모른다.

명절날, 깊은 밤, 이른새벽... 가깝지 않다.

지난 3월, 갑자기 대기도가 내려가고 눈이 내렸을 때였다.

뒤집고 울랐던 초급당사직회 회장들이 되돌아오는 종업원들을 만나게 되었다. 며칠전에 삼복을 한 나무뿌리들이 얼것 같더니 달려가는 종업원들을 바라보는 일군의 마음은 뜨거웠다.

종업원들의 마음속에 태양의 성지에서 일하는 금

태양의 성지에 새겨지는 숭고한 도덕의리

2 중3대혁명붉은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사업은 어디까지나 격심과 불이 없이 대상의 특성과 구체적인 환경에 맞게 창조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어느 단위 당사업이나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진행될 때

논 배리는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오시려는 우리 인민의 총정 한결같지만 이곳 종업원들의 마음은 더욱더 뜨겁다.

이를 말해주는 특이한 일과 이런 날이다. 눈오는 날 일과이다. 눈오는 날 아침출근시간이 앞당겨지는것은 예상사이다. 이런 날이면 자그마한 오솔길에라도 눈이 쌓일때마다 종업원들모두가 손에서 비자처럼 눈가래를 내놓을 모른다.

명절날, 깊은 밤, 이른새벽... 가깝지 않다.

지난 3월, 갑자기 대기도가 내려가고 눈이 내렸을 때였다.

뒤집고 울랐던 초급당사직회 회장들이 되돌아오는 종업원들을 만나게 되었다. 며칠전에 삼복을 한 나무뿌리들이 얼것 같더니 달려가는 종업원들을 바라보는 일군의 마음은 뜨거웠다.

종업원들의 마음속에 태양의 성지에서 일하는 금



인민생활상을 다그치고있다. 일일들을 안고 본사기자 림현숙

은혜로운 품속에서 누려가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

대교조시대의 선봉대, 경제강국건설의 기동

선군의 내 조국에 5.1절이 왔다. 영웅적로동계급을 비롯한 은나라 근로자들을 위한 대교조시대의 선봉대, 경제강국건설의 기동... (중략) ...

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또 하나의 격동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남흥가소화대상공사의 완공! 지난 3월 2.8비날론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 비날론복도호를 내내 대교조시대를 열어온 데 이어 남흥의 로동계급이 가소화대상공사를 훌륭하게 계속하고 조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한 것은 우리 로동계급이 지니고 있는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똑같은 애국심의 일대 시위로 되며 전세계 근로자들의 명절인 5.1절을 앞두고 어머니조국에 또 하나의 커다란 로적전선물을 드리는 것으로 된다.

적전환을 일으켜 온 나라에 사회주의만세소리, 강성부흥이러라는 노래소리가 더 높고 울려 퍼지고 있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하루빨리 열어제끼려는 우리 당의 구상과 결심을 현실로 꽃피우어주며 대교조시대의 선봉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빛나게 수행하려는 것은 우리의 전체 로동계급의 철칙같은 의지이다. 전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을 맞이한 우리 로동계급은 온 나라 근로자들의 가슴가슴에 이 땅에서 근로하는 인민의 세상, 로동계급의 세상을 펼쳐주고 창조와 건설의 드넓은 활무대를 마련해주시며 우리 근로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꽃피워주시는 이 땅의 로동계급과 견줄 수 있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에 넘쳐 있다.

한 강철직장의 전기로앞에서 이글거리는 쇠물을 주의깊게 살펴 보기도 하고 자제로 꾸민 생산기지도 돌아보시었다. 그러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강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당을 따르는 로동계급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 그 정신만 있으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고 하시며 성장의 로동계급을 새로운 혁명적대교조를 위한 투쟁으로 불러일으키셨다. 이것이 어찌 성강방에만 새겨진 이야기가겠는가. 쇠물이 켈켄 켈켄 있는 강선에도, 비날론복도가 쏟아지는 비날론생산기지도, 기적소리 우렁찬 두물기에서도 그대 영웅적투쟁을 잃는 포전들에도 온 나라 근로자들을 투쟁의 기수, 창조의 영웅으로 키워주시는 철세의 위인의 자로운 사랑과 믿음의 아기가 되셨다. 로동계급이 이기고, 그래서 수령님께서는 어려움을 때마다 로동계급을 찾아가곤 하시며 그대를 믿고 앞으로 가는 로동계급을 중시하고 적극 내세우며 로동계급을 위하여 충실히 일하고 로동계급에게 철저히 의거하여 부닥치는 난관을

뛰고나감으로써 강성대국건설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에 하는 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 로동계급의 위대한 어머니이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들의 정치사상적준비상태가 훌륭하게 대하여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이런 인민에게 의거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늘 뜨겁게 말씀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 이야말로 이 땅에서 펼쳐지는 위대한 창조와 건설의 원천이며 강성대국건설의 힘은 원동력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 담력과 배짱을 가지고 과감히 돌진해나가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이며 함흥리상의학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최첨단기술을 돌파하기 위한 과학연구를 강화하여 치료제방사약품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이곳 일군들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최첨단기술을 개척하며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려는 당의 뜻대로 과학자들이 첨단단말기의 제조업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렇듯 이룩한 연구성과가 주목된다.

이곳 과학자들이 연구한 이식수술방법은 다른 피부이식수술방법에 비해 환자에게 주는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특별한 수술기구나 약물이 없이도 일방면에서도 도입할 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소의 일군들과 연구자들은 모든 것의 폐편을 절대 대량으로 요구하며 하루빨리 최첨단수준을 돌파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엽주군 남암협동농장에서

경공업과 농업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함에 대한 새해공포수사실을 받아안은 남암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장리당일군은 반길수록 마추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농장이 전국농업근로자친목회경쟁대회에서 최우수농장을 수상하여 소문을 났는데 (새물자랑) 뿐 아니라 (농사자랑)으로도 소문을 크게 내놨습니다.”**

모전에 와다랗다 실어했다. 하나 그렇고도 만족할 수 없었다. 모든 농사자비를 최고수준에서 완벽하게 끝내자는 것이 농장원 모두의 한결같은 결심이었다. 자기 가정에서 수직의 두엄을 생산하여 논밭에 낸 2작업반과 4작업반의 농장원들이 기계를 늦추지 않고 당면한 영농작업에서도 앞장서고 있다. 이틀만이 아니었다. 누가 시키지 않았고 스스로 거름생산의 짧은시간을 리용하여 잡초가 전혀 없는 질 좋은 복조제료를 마련해놓은 1작업반의 농장원들이 하루일과를 끝낸 저녁이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선진적인 영농지식을 습득해가는 작업반초급원들과 기술원들 그리고 나이는 많지만 앞장서서 일하는 청년들이 마치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듯이 서로를 돕고 있어 농장원들이 자랑스럽게 부르는 ‘우리 집’이 바로 이 농장이다.

로동속에 꽃피는 영예와 행복

얼마전 대동력기부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를 찾았을 때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있었다. 그런가하면 《나는 야 장군님 아시는 처녀운정군》, 《불꽃이여 타버리라》를 비롯하여 혁신자축하모임은 영영일》라는 제목이 새겨진 책 한창찬장 펼쳐보는 우리의 가슴은 젖어들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고 우리 나라는 로동계급을 위한 나라입니다.》** 첫째에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정중히 모신 그 책에서 우리는 평범한 로동자들의 가슴마다에 이렇듯 생생하고 창조의 노래를 안겨준 은혜로운 사랑의 손길, 행복과 영예로 충만한 우리 로동계급의 벅찬 생활을 가슴뜨겁게 느낄 수 있었다.

복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서 그들은 가슴속에는 지난해 8월 삼복의 무더위를 헤치며 자기들의 일터를 찾으신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기업소의 대형원을 돌아보시며 로동자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문화후생시설들을 훌륭히 일떠세우시며 그들에게 충분한 문화휴식조건을 보장한 것은 좋은 일이라고 그토록 기뻐하시던 그날의 자로운 모습이 소중히 간직되어 있다. **《혁명이 있는 곳에는 품만한 정서가 있고 정서가 넘치는 곳에는 들끓는 생활과 투쟁이 있다.》** 얼마전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이끄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경희국 《산울림》을 몸소 보아 주신 경에하는 장군님께서는 국립연극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작품을 창작하는데 있어 매우 만족하시면서 이 작품에 《김일성장》을 수여하도록 하고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경에하는 장군님께서는 경희국 《산울림》은 사상성은

우리 장군님께서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는 로동자들을 위해 기업소의 일군들과 대형원의 종업원들 그리고 후방부문의 종업원들이 그리고 또 무뎠을려나 헌신적 열정과 헌신적 열정의 한계지, 한계지에서 그대 어려와 우리는 책갈피를 더욱 무심히 번질수 없었다. **《혁명이 있는 곳에는 품만한 정서가 있고 정서가 넘치는 곳에는 들끓는 생활과 투쟁이 있다.》** 얼마전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이끄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경희국 《산울림》을 몸소 보아 주신 경에하는 장군님께서는 국립연극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작품을 창작하는데 있어 매우 만족하시면서 이 작품에 《김일성장》을 수여하도록 하고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경에하는 장군님께서는 경희국 《산울림》은 사상성은

최근에 협기성공에 의한 정비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하여 여러 나라들에서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 사는 호기성공뿐만 아니라 산소가 전혀 없거나 적은 환경속에서 사는 혐기성공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일부 나라들에서만 소유한 혐기성공에 대한 연구는 로동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업소의 일군들과 대형원의 종업원들이 그리고 후방부문의 종업원들이 그리고 또 무뎠을려나 헌신적 열정과 헌신적 열정의 한계지, 한계지에서 그대 어려와 우리는 책갈피를 더욱 무심히 번질수 없었다. **《혁명이 있는 곳에는 품만한 정서가 있고 정서가 넘치는 곳에는 들끓는 생활과 투쟁이 있다.》** 얼마전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이끄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경희국 《산울림》을 몸소 보아 주신 경에하는 장군님께서는 국립연극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작품을 창작하는데 있어 매우 만족하시면서 이 작품에 《김일성장》을 수여하도록 하고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경에하는 장군님께서는 경희국 《산울림》은 사상성은

위대한 령도자 김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이 있는 곳에는 품만한 정서가 있고 정서가 넘치는 곳에는 들끓는 생활과 투쟁이 있다.》** 얼마전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이끄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경희국 《산울림》을 몸소 보아 주신 경에하는 장군님께서는 국립연극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작품을 창작하는데 있어 매우 만족하시면서 이 작품에 《김일성장》을 수여하도록 하고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경에하는 장군님께서는 경희국 《산울림》은 사상성은

위대한 령도자 김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이 있는 곳에는 품만한 정서가 있고 정서가 넘치는 곳에는 들끓는 생활과 투쟁이 있다.》** 얼마전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이끄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경희국 《산울림》을 몸소 보아 주신 경에하는 장군님께서는 국립연극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작품을 창작하는데 있어 매우 만족하시면서 이 작품에 《김일성장》을 수여하도록 하고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경에하는 장군님께서는 경희국 《산울림》은 사상성은



평양시립대병원에서 의료진을 열거하는 혁신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기념

파키스탄 준비위원회대표단

여 리 곳 참 관

100돐기념 파키스탄준비위원회대표단이 주제사상탑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경에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리론적업적을 깊이 전하는 주제사상탑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탐신과 군상들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탐전당에 올라 평양시의 전경을 부감하였다. 단장은 감상록에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위대한 인민으로 될 수 있었다고 썼다. 대표단은 또한 인민대학습당,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였다.

《김일성장》 제관작품 경희국 《산울림》 성황리에 공연

다 른 모든 형상요소들이 최상의 경지에 이른 선군시대 문예예술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작품이 우리 근대

다 른 모든 형상요소들이 최상의 경지에 이른 선군시대 문예예술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작품이 우리 근대과 인민의 사상교양에서 훌륭한 교본으로 된다고 높이 평가하시어주시었다. 경에하는 장군님의 높은 신임과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심장깊이 새겨안은 국립연극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명량한 웃음속에서 투쟁의 참된 진리와 생활의 보람을 새겨주는 경희국 《산울림》을 최상의 수준에서 형성하여 무대에 올렸다. 지금 수많은 당원들과 인민군인들, 청년들과 근로자들이 작품을 찬탄하고 있다. 이 명작이 안겨준 깊은 인상을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있는 천리마시대의 체현자들, 어제날의 천리마기수들도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계속 혁신, 계속진전할 때 훌륭하고 아름다운 메달을 맞이할수 있다는 생활의 참된 진리를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혁명이 있는 곳에는 품만한 정서가 있고 정서가 넘치는 곳에는 들끓는 생활과 투쟁이 있다.》** 얼마전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이끄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경희국 《산울림》을 몸소 보아 주신 경에하는 장군님께서는 국립연극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작품을 창작하는데 있어 매우 만족하시면서 이 작품에 《김일성장》을 수여하도록 하고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경에하는 장군님께서는 경희국 《산울림》은 사상성은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폐막

태양절을 맞으며 4월 7일에 개막되었던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되었다. 우리 인민과 체육애호가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진행된 경기대회에서 체육인들은 평시에 준비해온 체육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좋은 성과를 달성하고 나라의 체육발전에 기여하였다. 집단주의에 기초한 경기의 속도화를 실현하고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킨 선수들은 역기, 육상경기 7개 세부종목에서 공화국 새 기록을 세웠다. 4.2체육단 선수들이 축구(여자), 농구(남자, 여자), 배구(남자, 여자), 탁구(남자, 여자), 승마(남자, 여자) 경기에서, 리명수체육단 선수들이 축구(남자), 탁구(남자) 경기에서 각각 제 1위를 하였다. 야구경기에서 기관차체육단 남자선수들이, 송구경기에서 동남체육단 남자선수들이, 소프트볼경기에서 평양시 모란봉체육단 여자선수들이, 짧은 주루속도경기에서 백마산체육단 남자선수들과 장산체육단 여자선수들이 우승의 영예를 지니었다. 경기대회폐막식이 4월 30일 청춘거리 봉구경기장에서 있었다. 관객부원 일군들, 체육인들이 폐막식에 참가하였다. 축구, 농구, 배구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경이한 단체들과 선수들에게 우승컵과 메달이 수여되었다. 경기에서 높은 기술을 발휘한 선수들과 좋은 경기품성을 보여준 단체들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박희선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 폐막연설을 하였다. 그는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에 대해 언급하고 이번 경기대회에서 체육을 우리 식으로 발전시키는데 대한 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파시되었다고 축하하였다. 모든 체육인들이 율해공동사업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고위위원회, 당중앙고위위원회 공동투쟁을 받고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체육기술에서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해 분발하고 또 분발함으로써 선진조선의 새로운 《체육문화》를 창조할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조진중양동신》**

제 25차 중앙과학기술축전 폐막

【평양 4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제 25차 중앙과학기술축전이 폐막되었다. 4월 2일부터 진행된 이번 축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고 각기 과학자, 기술자, 근로자들이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치며 핵심기술인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을 비롯한 여러 부분의 기술공학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가치있는 성과와 경험들이 교환되었다. 축전에서는 온 나라의 대영사를 안이온 주체적영웅비날론, 알골생산능 높이는 다수확종종의 논벼, 유기질비료를 비롯하여 인민생활향상의 주공전선인 경공업과 농업부문, 화

선반공으로 40여년

문평계련소 선반공 권인석 동무는 오랜 기간 많은 일을 책임적으로 해온 혁신자이다. 그는 40여년간 선반공으로 일해오면서 직장의 모든 물건기재들의 만가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썼다. 그는 지난 기간 수직선의 창고고안과 기술혁신으로 국가에 큰 리익을

